

조선업 침체가 부른 미분양 아파트 폭탄

전남 8월 '악성 미분양' 전달비 234.5%↑...전체 1494채 영암 미분양관리지역 선정...목포 주택시장도 도미노 타격

"머무를 집 구하기도 힘들었던 2-3년 전과 비교하면 천차만별. 사원 아파트를 우선 분양받아 일반에 팔아도 시세차익을 얻을만한데, 살 직원들이 없잖아요. 경기가 안좋으니깐. 일자리를 잃고 떠난 사람도 많고 계속 일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영암만 그런가요. 협력업체 직원들로 복직이던 목포도 비슷해요."

영암 현대삼호중공업 일대는 몇 년 전만 해도 산업, 특근 등을 마치고 나오는 2만명이 넘는 직원들로 일대 식당가와 술집 주변은 '불야성'을 이룰 정도로 북적였다. 조선업에 근무하는 직원들 업무 시간에 맞춰 3교대로 24시간 영업을 하던 술집만 수십 곳에 달했고 다방·양구장, 식당도 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였다.

하지만 현재는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형편이다. 24시간 술집은 커녕, 영암군이 승인한 분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해도 찾는 사람이 없는 실정이다. 조선업 경기침체가 결정적이라는 게 지역 경제계 분석이다.

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완공되고 나서도 분양되지 않고 빈집으로 남아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전남에서만 679채로, 전달(203채)보다 234.5%나 폭증했다.

이 때문에 전남 전체 미분양 물량도 전달(1103채)보다 391채가 늘어난 1494채로 35.4%나 급증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이 임대료 지었다가 일반 분양으로 내놓은 사원아파트 물량이 대거 포함된 게 미분양 물량 증가로 이어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영암지역을 최근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삼호중공업은 지난 1996년 전용면적 50.9㎡와 59.8㎡ 등 1251가구의 사원아파트(2차)를 지어 임직원과 협력업체 사원

들을 위해 임대료 공급했다가 울 들어 분양으로 전환했다.

시세차익을 노리고 통상 임직원을 중심으로 공급하는 우선 분양 단계에서 조기 마감되던 예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에 517채가 주인을 찾지 못했고 고스란히 미분양 물량 통계에 잡혔다.

조선업이 '잘 나가던 때'만 해도 사원아파트 구하기가 워낙 힘들어 협력업체 직원들은 아예 목포 하당, 대불산단 쪽으로 옮겨 머무를 숙소를 마련해야 했다는 게 주변 부동산업계 설명이다. 하지만 최근 경기침체의 영향을 직격타로 맞으면서 일자

리를 잃고 떠난 사람이 늘어났고 주택 시장도 극심한 침체에 빠졌다는 게 영암군 분석이다.

당장, 조선업 불황으로 대불산단 내 근로자들이 떠나면서 영암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 4월 말 기준 전년도에 비해 8.42% 하락,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여기에 인근 대불산단에 1300여세대가 신규 아파트가 분양중이고 무안 오룡지구 분양 물량도 3200여가구에 달하는데, 오는 10월 통계에 포함되는 협력업체 임직원들을 위한 4차 사원아파트 물량(336세대)까지 포함될 경우 '악성 미분양'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우세하다.

조선업 경기가 침체된 후 영암·목포의 주택 시장을 비롯한 경기는 좀처럼 살아나

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대기업인 현대삼호중공업 매출이 지난 2015년 매출 4조5040억원에서 지난해 2조7710억원으로 38.5%가 줄면서 한 때 2만 명이 넘는 고용 인력도 올 상반기에는 1만6000여명까지 줄어든 상태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수주물량이 늘어나면서 고용 인력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조만간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전남도 등은 현대삼호중공업의 수주 물량이 올 7월까지 29척에 이르는 등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내년 말까지 3000여명의 고용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해 시장 활성화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가을 비타민C 드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가을 햇 단감을 선보였다. '태추' 품종으로 배처럼 아삭한 식감에 씨가 적어 먹기 편하고 단감에 비해 당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라는 게 백화점 설명이다. (롯데백화점 제공)

생산·소비 '뚝·뚝'... 회복 기미 없는 경제지표

광주·전남 8월 산업활동 동향...광공업 생산 전년비 7.5% ↓

지역 성장을 이끌어갈 생산은 살아나질 않고 소비는 감소하는 등 지역경제의 암울한 지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2일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8월 광주·전남 산업활동 동향'을 조사한 결과, 광주의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5%나 줄었다.

광주 지역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10월(-11.6%)부터 11개월째 전년 대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주력 산업인 자동차의 생산이 21.7% 줄어 1년 전에 비해 감소세가 두드러졌고 타이어를 포함한 고무·플라스틱도 8.9% 감소했다. 여기에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12.8%) 분야 생산도 감소세를 면치 못했다.

고무 및 플라스틱(-8.9%) 생산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줄었다.

생산이 줄면서 출하도 1년 전보다 5.4% 감소했다. 자동차(-16.1%), 금속가공(-20.8%),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17%) 등의 감소세가 컸다.

소비 지표도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대형소매점 판매는 대형마트가 지난해 대비 6.5% 줄었고 백화점은 3.1% 늘어 전체적으로는 2.1% 감소했다. 건설 수주도 광주의 경우 지난해 대비 11% 감소했다.

전남의 광공업 생산도 전년 대비 2.2% 증가했으나 지난해 9월부터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고무 및 플라스틱(-15.6%)·식료품(-10%)·비금속광물(-9.4) 분야 생산이 주로 감소했다. 전남도 대형소매점 판매는 7.5% 감소했고 건설수주수도 49% 줄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309.57 (-29.31) ↓ 금리(국고채 3년) 2.02 (-0.01)
- ↓ 코스닥 794.99 (-21.54) ↑ 환율(USD) 1119.20 (+7.40)



광주은행 외화정기예금 이율 '연 2.4%'

1000만달러 한정 판매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이 오는 11월 30일까지 창립 50주년 기념 특판 외화정기예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판 외화정기예금은 가입대상 제한 없이 최소 1000달러부터 최대 10만달러까지 영업점과 인터넷·스마트뱅킹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으로 1인 1계좌씩 가입 가능하다. 미달러(USD) 총 1000만달러 한도로 판매를 진행하며 한도 소진시에는 조기 종료될 예정이다.

예금이율은 10월 2일 기준 기본금리 ▲6개월 연 2.0% ▲1년 연 2.1%이고, 우대금리는 ▲신규금액 5천불 이상인 경우 0.2% ▲인터넷/스마트 뱅킹으로

가입시 0.1% ▲원화를 외화로 전액 환전하여 가입(금액과 가입 채널에 관계 없음)시 0.3%로 최대 0.3%를 제공받을 수 있다. 따라서 12개월 외화예금 신규 시에 최고 연 2.4%의 금리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품 가입 및 만기해지 시 환율우대 50%와 만기해지 금액을 해외송금 수수료 우대 50%의 혜택까지 주어져 특판으로 판매하는 이번 외화정기예금에 많은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이번 광주은행 특판 외화정기예금은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달러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 안성맞춤의 상품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

국민 60% "정부 일자리 정책 효과 없어"

경제개혁연구소 설문...47.3% "대기업 중심"

성인 10명 중 6명꼴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일자리를 늘리는 데에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경제개혁연구소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7~30일 전국 성인 1천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정부 정책이 일자리 수를 늘리는 데에 실효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0.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비해 '그렇다'는 응답자는 33.4%에 그쳤다.

올해 1월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와 비교하면 '실효성이 없다'는 응답률은 2.9%포인트 상승했고 '실효성이 있다'는 6.2%포인트 줄었다.

이번 설문에서는 정부 정책이 고용 안정이나 차별 해소 등 일자리 질 제고에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있다'는 응답자가 58.3%에 달해 '있다' (37.2%)보다 훨씬 많았다.

또 현 정부의 기업 정책과 관련해 '대기업 중심' (47.3%)이라는 응답이 '중소기업 중심' (31.5%)보다 많이 나왔다.

세금 정책에 대해서는 '부유층에 유리하다' (50.0%)가 '서민에 유리하다' (35.1%)보다 응답률이 높았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일자리정책에 대한 평가가 전반적으로 나빠졌고 특히 20~40대 남성과 60대 이상 여성, 자영업·사업 직종 등에서 부정적 여론이 많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09%포인트다. /연합뉴스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안되고 갑갑함 째야 ?

아닙니다. 나를 위해 포기할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능성 속옷 의명가



-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 부위별로 특별하게
- 생리적인 불편을 해신
- 편안한 착용감
- 탄성GOOD! 흡습성 GOOD!
- 일본 도레이社 LYCRA
- 별단면육각형 사용
- 해당심층수 각종미네랄
- 이온, 실크이노산,
- 완적외선 특수물질 가공

www.aroma-life.co.kr

1588-2219